

'해외여행' 급증...국제선, 코로나 이전 대비 70% 회복

하늘길 정상화

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 455만5766명
중국 하늘길 회복에 여객 수 급증 가능성
여객 수요 증가에 국제선 잇달아 재개

국제선 여객 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도 앞다퉀 국제선 확대에 동참하며 폭증하는 여객 수요를 잡으려는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실시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455만5766명을 기록했다. 1월(461만7786명)과 비교해 1.3% 줄었다.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더니 10월에는 308만1338명까지 늘었다. 같은해 12월 400만명을 돌파한 뒤, 1~2월 4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 여객 수 회복이 전체 여객 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와 한중 노선 운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주 62회였던 중국 운항 편수는 이달 말부터 200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여행이 재개되며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중국 하늘길 확대도 또 한번 퀀텀점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선 여객 수요에 맞춰 항공사들 노선 확대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국제선 78개 노선에서 주 622회로 운항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67%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54개 노선에서 주 312회를 운항 중인 국제선을 내달부터 55개 노선에서 주 349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9년 대비 62% 수준으로 앞으로도 국제선 노선을 빠르게 늘릴 예정이다.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올 상반기 중국과 동남아 노선 재개 및 증편에 집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이상 수준까지 운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26일부터 중국 운항을 주 84편으로 2019년 대비 38%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17개 주요 중국 노선에 대해 주 89회로 운항을 증편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안내 모니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명이 보이는 모습.

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증편 계획에 따라 올 여름에는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0%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항공운송협

회(IATA)는 2024년 항공 여객수가 40억명에 달하며 2019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승무원 속속 '복귀'...항공업계 정상화 '초입기'

국제선 정상화에 따라 인력 보강 적극 나서
순환휴직 종료, 정상근무...신규 채용도 활기

코로나19 사태로 휴직률이 한때 60%에 달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항공업계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운항 규모는 최대 97.5%까지 급감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인력 감축을 비롯해 초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 항공권 수요가 늘면서 3년 가까이 움츠려 있던 국내 항공사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국제선 승객은 450만 명을 넘었고 탑승률도 90%로 올랐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과 동남아 수요 증가에 맞춰 운항을 늘린 덕분이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과 중국 노선이 차례로 회복하며 대형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를 더 늘리고 있다.

국제선 정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업계는 인력 보강에 적극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4월부터, 대한항공은 6월부터 승무원들의 정상 근무에 돌입한

다. 대한항공은 이미 객실 승무원 전원을 6월부터 근무에 투입한다고 공시했다. 이미 인력의 90%가 일선에 복귀한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완전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지난해 말 순환 휴직을 종료하고 모든 객실 승무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 1월부터 승무원 전원 근무 체제로 들어갔다.

최근 항공운송면허(AOC)를 재취득한 이스타항공 인력도 이달 26일 재운항하는 김포~제주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항공기를 투입한다.

항공사들은 기존 인력 복귀에 멈추지 않고 신규 채용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 대응을 하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운항 승무원, IT 전문 인력 등 다양한 항공 인력 채용도 함께 이뤄졌다.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도 올 초 3년 4개월 만에 신입 객실 승무원을 채용했다. 진에어는 4년 7개월 만에 채용 문을 열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신입 객실 인턴 승무원 90명을 채용했다. 정비, 일반직 등도 포함한 대규모 채용이었

다. 올해에도 다양한 항공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운항을 재개하는 이스타항공은 올 연말까지 항공기 10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해 올해에만 2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할 예정이다.

단 대한항공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용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등 변수에 따른 것으로 항공업 자체가 활기를 띠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진단이다.

뉴스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m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